

☞ 홈 > 뉴스 > 충남 > 천안

우체국시설관리단 훈훈한 '재능기부'

나눔플러스 천안본부서 봉사

2019년 06월 04일 (화) 16:29:25

김병한 기자 ☞ noon38@paran.com



▲ 우체국시설관리단 천안지역 임직원들이 나눔플러스 천안시지역 본부를 찾아 봉사 후 식료품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우정사업본부 산하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사장 박윤현) 천안지역 임직원들이 나눔플러스 천안시지역 본부를 찾아가 시설환경개선 봉사활동과 함께 식료품을 전달했다.

4일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따르면 신동원 부팀장과 정용자 반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나눔플러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락 나눔활동은 물론 시설물 청소, 수도꼭지 및 화장실 변기 수리 등 재능 기부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개구리 라면쉼터에 활성화를 위해 라면을 전달했다.

나눔플러스 관계자는 "천안지역본부는 청개구리 라면쉼터를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라면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상담해주고 있다"며 "기부 물품은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부팀장은 "서로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 모여 천안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의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